

2019년 8월 29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에너지, 금융, 중소형주가 상승 주도 원유 수요 증가로 경기 침체 우려 상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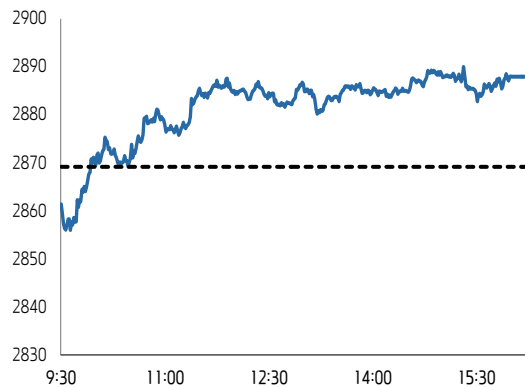
러셀 2000 지수 +1.15%

미 증시는 노딜 브렉시트 우려 및 장단기금리 역전 현상이 강화되자 하락 출발. 더불어 미국 정부가 9월 1일 대 중국 관세 부과를 관보에 개제한 점도 하락 요인. 그러나 원유수요 증가로 경기 침체 우려를 상쇄함에 따라 상승 전환에 성공. 더 나아가 금융주 및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자 상승폭 확대. 다만, 기술주는 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승은 제한(다우 +1.00%, 나스닥 +0.38%, S&P500 +0.65%, 러셀 2000 +1.15%)

미 증시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이어지며 경기 침체 우려를 자극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임. 에너지, 금융주,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는데 힘입은 것으로 추정. 미국 국채금리는 5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율이 12개월 평균(2.36 배)을 상회한 2.48 배를 기록하는 등 수요가 탄탄하자 하락폭이 확대되며 경기 침체 우려 자극. 그러나 지난주 원유 재고가 1천만 배럴 감소하는 등 수요가 증가하자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며 투자심리 개선되며 상승. 특히 30년물 국채금리가 S&P500 기업들의 배당수익률 하회기 지속되자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 더불어 매파 성향의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가 "제조업 둔화, 기업 투자 부진, 글로벌 경제 약점 등을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경제는 여전히 좋다" 라고 언급 한 점도 긍정적인 영향. 이로 인해 금융주 및 에너지 등이 상승

한편, 러셀 2000 지수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임. 보통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 발생하면 미국 은행들은 통상 대출을 축소하게 되며, 이는 고스란히 중소형 기업들에 부담을 주게 됨. 그렇기 때문에 최근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요인. 그러나 국채금리의 하락이 심화되자, 단기적으로 기존의 대출로 인한 이자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자 오늘은 상대적인 강세를 보임. 현재 러셀 2000의 기업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 특히 장기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올해 들어서는 변동금리형 단기부채 비중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금리하락이 우호적. 다만, 3천억달러 관세 발효는 소형주 이익 추정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지속적인 강세는 제한 될 것으로 전망. 실제 투자은행들은 러셀 2000 기업들 중 70%에 이르는 기업들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트럼프가 관세 발효 발표한 8월 이후 하향 조정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등락률(%)	Close	D-1	지수	등락률(%)	Close	D-1
KOSPI		1,941.09	+0.86	홍콩항셍		25,615.48	-0.19
KOSDAQ		602.90	+2.48	영국		7,114.71	+0.35
DOW		26,036.10	+1.00	독일		11,701.02	-0.25
NASDAQ		7,856.88	+0.38	프랑스		5,368.80	-0.34
S&P 500		2,887.94	+0.65	스페인		8,747.10	+0.21
상하이종합		2,893.76	-0.29	그리스		843.42	+1.42
일본		20,479.42	+0.11	이탈리아		20,990.71	-0.0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에너지, 금융주 강세

보석 제조업체 티파니(+3.02%)는 양호한 실적과 중국발 수요 증가 영향으로 강세를 보였다. 화장품 제조업체 코티(+6.02%)는 비용 절감과 연간 매출 상향 조정에 힘입어 상승 했다. 엑손모빌(+0.73%), 코노코필립스(+1.90%), EOG리소스(+1.21%) 등 원유 생산업체와 할리버튼(+3.99%), 솔룸베르거(+1.18%) 등 원유서비스 업종은 국제유가 상승과 수요 증가 기대가 높아지자 상승 했다.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업체인 휴렛 팩커드 엔터프라이즈(+3.40%)는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과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에 힘입어 상승 했다. 반면 클라우드 사업 경쟁 업체인 아마존(+0.14%), MS(-0.13%) 등은 보험권 등락에 그쳤다.

JP모건(+1.00%), 씨티그룹(+1.14%), BOA(+1.44%) 등 금융주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과 국제금리 하락이 제한되는 경향을 보이자 강세를 보였다. 트럼프가 바이오연료 소비 촉진 정책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관련 종목인 그린 플랜(+4.97%), 리뉴어블 에너지(+3.69%) 등이 강세를 보였다. 소프트 웨어 회사인 오토데스크(-6.94%)는 연간실적 하향 조정 여파로 부진했다. 오라클(-0.84%), 세일즈포스(-1.13%) 등 여타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부진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3.16%	대형 가치주 ETF(IVE)	+0.90%
에너지섹터 ETF(OIH)	+2.65%	중형 가치주 ETF(IWS)	+0.88%
소매업체 ETF(XRT)	+2.67%	소형 가치주 ETF(IWN)	+1.28%
금융섹터 ETF(XLF)	+0.92%	대형 성장주 ETF(VUG)	+0.50%
기술섹터 ETF(XLK)	+0.09%	중형 성장주 ETF(IWP)	+0.49%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09%	소형 성장주 ETF(IWO)	+1.07%
인터넷업체 ETF(FDN)	+0.16%	배당주 ETF(DVY)	+0.86%
리츠업체 ETF(XLRE)	+0.28%	신흥국 고배당 ETF(DEM)	+0.44%
주택건설업체 ETF(XHB)	+1.10%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12%
바이오섹터 ETF(IBB)	+0.65%	미국 국채 ETF(IEF)	+0.04%
헬스케어 ETF(XLV)	+0.73%	하이일드 ETF(JNK)	+0.25%
곡물 ETF(DBA)	+0.27%	물가연동채 ETF(TIP)	+0.20%
반도체 ETF(SMH)	+0.64%	Long/short ETF(BTAL)	-0.6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15.71	+1.40%	-2.66%	-10.11%
소재	347.86	+0.86%	-1.90%	-4.84%
산업재	622.48	+1.06%	-1.24%	-5.05%
경기소비재	932.02	+1.09%	-1.16%	-2.31%
필수소비재	622.33	+0.94%	+0.54%	+1.82%
헬스케어	1,037.01	+0.71%	-1.70%	-1.62%
금융	437.42	+0.91%	-0.66%	-6.82%
IT	1,369.42	+0.10%	-2.25%	-3.38%
커뮤니케이션	164.51	+0.51%	-0.68%	-2.76%
유틸리티	313.80	-0.26%	+0.06%	+3.94%
부동산	240.46	+0.34%	+0.09%	+3.7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종목장세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 는 0.94% MSCI 신흥 지수 ETF 는 0.28% 상승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인 48 계약 순매도 했으나 0.10pt 상승한 255.9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212.3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중소형 종목들과 에너지, 금융주 강세로 인해 상승했다. 특히 장단기 금리 역전이 어이지며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졌으나, 원유 수요 증가 소식이 전해지며 이를 상쇄한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더 나아가 국채금리 하락이 이어지자, 부채가 많은 중소형 종목들의 이자비용 감소 기대가 높아진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러한 요인은 한국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오늘 미 증시 강세는 한국 증시에 영향력이 제한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원유 수요 증가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된 점은 한국 증시 투자심리 개선에 우호적이다. 더 나아가 미국의 국채금리가 배당수익률을 하회하고 있어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이다. 다만,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가 현실화 되고 있다는 점,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전일 중국이 내수 부양정책을 발표했다. 그러자 트럼프는 옥수수과 대두를 이용한 바이오 에너지 소비 촉진 정책을 수주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렇듯 양국 모두 무역분쟁 격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정책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9 월 초 무역협상을 앞두고 이번 주 있을 미-중 전화협상 결과를 기다리며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모기지 신청 건수 감소

7 월 독일 수입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하락했다. 전년 대비로는 2.1% 하락했다. 한편, Gfk 독일 소비자 동향은 9.7 로 발표돼 예상치(9.6)을 상회했다.

유로존 민간대출은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치(yoy +3.3%) 보다는 높았으나, 예상치(yoy +3.5%) 보다는 부진했다.

미국 모기지 신청건수는 지난주 대비 6.2% 감소 했다. 특히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 년 모기지 금리가 지난 주(3.90%) 보다 상승한 3.94%로 발표되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채금리 하락세 지속

국제유가는 에너지 정보청이 지난주 원유 재고가 1,003 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한 데 힘입어 상승했다. 더불어 가솔린도 209 만 배럴 감소하고 정제유 또한 206 만 배럴 감소하는 등 수요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었다. 최근 OPEC 이 7 월 감산합의 이행률이 159%를 기록했다고 발표하는 등 공급도 감소하고 있어 견고한 움직임을 보였다.

달러화는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높아지자 유로화와 파운드화가 약세를 보이는데 힘입어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존슨 총리가 10 월 15 일까지 의회를 휴회한다고 발표하자 10 월 31 일 단행되는 브렉시트가 노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신흥국 환율은 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 여파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으나, 역외 외환화는 보험권에 그쳤다.

국채금리는 노딜브렉시트 우려가 심화되자 하락했다. 더불어 5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12 개월 평균(2.36 배) 보다 증가한 2.48 배를 기록하는 등 수요가 탄탄하다는 점도 하락 요인이었다. 그러나 최근 가파르게 하락한 데 따른 일부 반발이 유입되며 낙폭은 제한 되었다. 일부에서 최근 하락이 과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하락 요인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금은 노딜브렉시트,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지수 상승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되며 하락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로 일부 품목이 하락하는 등 혼조세를 보였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21% 철근도 1.15%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5.78	+1.55	+0.18	Dollar Index	98.251	+0.26	-0.04
브렌트유	60.49	+1.65	+0.32	EUR/USD	1.1076	-0.13	-0.08
금	1,549.10	-0.17	+2.20	USD/JPY	106.11	+0.34	-0.48
은	18.456	+0.86	+6.74	GBP/USD	1.2215	-0.61	+0.70
알루미늄	1,746.00	-0.85	-2.02	USD/CHF	0.9817	+0.02	-0.02
전기동	5,690.00	+0.12	-0.37	AUD/USD	0.6734	-0.27	-0.69
아연	2,257.00	-0.79	+1.39	USD/CAD	1.3304	+0.16	+0.10
옥수수	371.00	+1.30	+0.20	USD/BRL	4.1614	+0.73	+3.31
밀	475.25	-0.31	+1.55	USD/CNH	7.1674	+0.01	+1.42
대두	865.75	+0.76	-0.83	USD/KRW	1213.90	+0.22	+0.95
커피	97.55	+0.41	+0.93	USD/KRW NDF 1M	1212.35	+0.07	+0.88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1.466	-0.51	-12.33	스페인	0.059	-2.00	-3.50
한국	1.241	-0.90	-3.90	포르투갈	0.089	-1.90	-3.80
일본	-0.275	-1.10	-3.90	그리스	1.713	-9.30	-26.60
독일	-0.714	-2.10	-4.40	이탈리아	1.040	-9.60	-29.00